

#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 찬반 논쟁 뜨겁다

### 찬성

근대유산과 원도심 재생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 경쟁력 충분

### 반대

이순신 장군 역사적 성지 훼손 관광지 쏠림 등 악영향 우려도

민선 6기 목포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해상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찬반 논쟁이 뜨겁게 돌아오고 있다.

이 사업은 고하도~다순금 마을~유달산(유선간)간 1.9km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3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시는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5월 중에 시민·환경·사회단체 간담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6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목포시의 입장과 지난 8일 목포청년 100인 포럼 주최로 열린 시민토론회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목포시의 입장=시는 해상 케이블카를 집체된 원도심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케이블카'로 명명하고, 이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목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콘셉트와 200억원이 투입되는 원도심 재생사업을 연계해 '문화·예술·역사+관광'을 재현한다면 체류형 관광지로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통해 흥도·제주도로 가는 관광객들이 목포에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고하도 개발 측면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어야만 민간자본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



### 해상케이블카 계획 보니

- 고하도~다순금 마을~유달산
- 길이 1.9km·사업비 300억원

목포시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 내달 간담회·6월 최종안 확정



지난 8일 목포청년 100인 포럼 주최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목포시 해상 케이블카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상 케이블카 설치의 민자 유치를 앞당기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색있고 매력적인 관광지 개발의 필요성도 역설한다. 중국인 등 무안공항 이용객 증가와 호남선 KTX 개통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리가 목포(750m)는 여수(300m)에 비해 2배나 길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는다.

이와 함께 시는 간담회·토론회·공청

회 등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고 환경단체를 참여시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토론회 무슨 말 오갔나=김판진 초당대 교수는 '해상케이블카, 목포 경제발전의 특인기'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목포시만의 랜드마크적인 관광자원 확보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국내의 성공사례를 볼 때 관광산업은 상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국내 최장인 사천의 2.5km보다 더 길어야만 경쟁력이 있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유달산보다는 어민동산~율도, 달리도(각 3.0km, 3.5km)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김흥락 한국관광공사 분석관은 "삭도(索道), 케이블카 등 다양한 산악 교통시설을 이용해 세계적 명소로 만드는 마스터 플랜을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해야할 때"라며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삭도 설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기 위해서도 삭도를 설치해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정태관 문화연대 공동대표는 "고하도는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재건한 역사적 성지로 일본자본에 의한 관광개발은 용납될 수 없고, 무엇보다 케이블카로 인한 관광지 쏠림현상으로 다른 관광지가 영향을 받아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없다"면서 "어른들에게 의한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형 새우리 건설건축사무소 대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정거장과 지주, 주차장 등 인위적인 시설이 산악지역에 설치돼야 하는 점"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에 논점을 집중해야지, 이 문제 때문에 로프웨이(ropeway)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케이블카 논란과 관련 시민들 사이에서는 "목포시는 단일한 행정에서 탈피해 반대 측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그램 마련하고, 경제논리를 무시한 채 환경운리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 상충되고 있어, 오히려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목포=임영준·고규석기자 lyc@

## 전남공무원교육원 목포 유치 적극 나서 시, 이낙연 지사에 건의...도립미술관 건립도

목포시가 전남공무원 교육원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목포시는 지난 10일 열린 전남도지사 및 도민과의 대화에서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공무원 교육원의 가장 중요한 입지 조건은 접근성이다. 도청과 인접하면서 도시지역에 있어야 이용이 편리하고, 도와 시·군 간 연계가 유리하다"면서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시는 전남공무원 교육원 목포시 유치를 위해 옥암 대학부지와 목포대 송림캠퍼스, 목상고 등 3곳을 후보지로 제시했다.

이낙연 지사는 "도청 소재지에 교육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현

제 7개 시·군이 유치전을 펴고 있는 만큼 최적지가 선택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서부권 '도립 목포미술관' 건립도 건의했다.

시는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5명을 배출하고, 1000여 명의 예술인이 활동하는 서남부권을 아우르는 목포에 전용 미술관이 없어 작가들의 작품기증 의사에 불구하고 전시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설명했다. 이어 건립 예정 부지에는 자연사 박물관과 목포문학관 등 문화시설이 집중돼 있어 관광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도 집중 부각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 목포무안신안축협 30일까지 사료 특별 할인판매

목포무안신안축협(조합장 문만식)은 오는 30일까지 배합사료와 TMF(완전 혼합발효)사료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축협은 지속적인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조합원들과 함께 하기 위해 배합사료는 1포(25kg)당 1000원, TMF 사료는 1포(20kg)당 800원씩 특별 할인판매한다.

문만식 조합장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배합사료 가격과 다자간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수입 축산물 증가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조합원들과 함께 하고자 실시하게 됐다"며 "희망이 보이는 축산업, 지켜나가야 할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무안신안축협은 지난해에 도 2억4000여만원의 사료 할인판매를 실시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에도 한우암소 번식우 집단 조성을 위한 우량 한우암소 집단 조성 사업과 한우 자가 인공수정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 목포교도소 교정협의회 90여명 참석 정기총회

목포 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임영준)는 지난 8일 목포시 상동 상그리아 비치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구지서 교도소장 등 교정위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협의회는 2014년 교정위원 교화사업 결산에 이어 올해 교화사업을 확정했다.

임영준 회장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매진하고 내실있는 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



교정위원과 수용자의 1대1 멘토링 사업.

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교정위원과 수용자의 1대1 멘토링 사업을 통해 수용자의 고충을 들어주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옛 용해아파트 재건축 사업 활기 2017년 12월 준공

목포시 구 용해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건축된 지 40년이 지난 이 아파트는 전남권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적용을 받아 재건축이 추진된다. 시행사인 서진산업개발과 금성토건은 "현재 추진 중인 청산절차가 조만간 종료 되는대로 착공식을 갖고,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조감도)

구 용해아파트는 지난 1999년 10월 조합 설립 후 지속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결여 등의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으며, 2013년 2월 목포시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현재 5층 3개 동(150세대)인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거쳐 지하 2층 지상 6~18층 5개 동(227세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된다.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에 맞춰 227세대 중 52.8㎡(16평형) 4세대를



제외하고, 223세대는 59.4㎡(18평형)로 배치된다. 이곳은 목포시 의원원과 이로초등학교, 목포과학대, 여상고 등 교육시설과 공공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뒤편으로는 녹지가 우거져 주거지로는 안성맞춤이다.

서진산업개발 김종석 대표이사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아파트를 건축해 지역발전과 용해동의 랜드마크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 용해아파트는 재건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모두 마친 상태로 착공예 제출한 남겨두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200억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담보 비율 : 최대 70%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나대지 원룸	최저 연 3.8%~	(연금수급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동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동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

###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유리지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